

<http://doi.org/10.5253/kpac.2023.52.3>

『삼설기』 <노처녀가>에 나타난 장애 인식과 그 의미

정미숙*

차 례

1. 들어가며
2. 조선 후기 '노처녀'에 관한 사회적 인식
3. 『삼설기』<노처녀가>에 나타난 장애의 의미
4. 맺음말

| 국문초록 |

가사작품은 형식적인 면에서 많은 서사를 담을 수 있어서 다양한 작가 층이 참여한 장르이다. 다양한 작가가 참여한 만큼 가사에는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조선 후기 많은 여성독자층이 만들어지면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등장한다.

노처녀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상당히 나이가 많은 노처녀인데 이 노처녀에게는 설상가상으로 장애까지 있다. 유교적 사상이 확고하던 봉건 사회에서 여성 스스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던 시대가 있었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발전된 모습을 그리는 중요한 발판이다. 작품에 나타나는 노처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위대한 외침의 시작이었는지 알 수 있다. 이 글은 삼설기본<노처녀가>를 대상으로 노처녀의 모습과 처지를 작품 속에서 읽고 유교적 제약이 많았던 시대의 노처녀에게 장애란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결혼을 못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완전한 성인으로 대접받을 수 없었으며, 결혼을 한 사람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었다. 자유로운 만남을 통한 결혼이

* 순천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수료

불가능했던 시대, 신체적 장애나 가난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늦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결혼에 대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 <노처녀가>에서 장애라는 결혼에 의해 문힌 인간의 욕구를 자각하고 그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노처녀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찾아가 볼 것이다.

핵심어 : 가사, 노처녀가, 결혼, 장애

1. 들어가며

가사 작품에는 많은 여성 인물들이 등장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 고단한 시집살이, 집안의 위기, 인과응보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서사를 만들어 낸다. 조선후기 가사는 작가 층이 넓어지고 다양한 인물들이 작품 속에 나타나면서 여성의 목소리와 구체적 형상을 그려냈다. 여성들에게는 많은 노동이 요구되었고 집안을 유지 또는 일으켜야 된다는 삶에 대한 막대한 압박관념이 함께 했다. 그 당시 ‘결혼’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되는 사회적 제도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결혼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려움에 처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도 모두 달랐다. 가사 작품 중 서사지향을 보이는 작품으로 <노처녀가>는 여러 문학 갈래에서 문학사의 주목을 받아왔다. <노처녀가>가 소설집인 방각본 『삼설기』¹⁾에 실렸다는 것은 당대의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증거이다.

<노처녀가>는 당시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 특히 여성 속에서도 더 소외된 ‘노처녀 여성’의 이야기이다. <노처녀가>에 등장하는 화자는 신체적인 조건에서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화자는 장애를 가졌지만 주어진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과 의지를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인다. 작가는 ‘노처녀’라는 여성의 이

1) 방각본 『삼설기』는 1848년에 간행됨.

야기를 통하여 당시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당시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본인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았기에 <노처녀가>의 화자는 장애를 겪어온 모습으로 나타난다. 불구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시대의 ‘노처녀’는 결혼이라는 목표에 절대적으로 매달린다. 결혼하지 못한 ‘노처녀’는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시집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봉건적인 사고방식이 당시 여성들에게 결혼을 강요했다. 사회적으로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불완전한 인물인 노처녀의 장애는 작품 속에서 한껏 과장되어 묘사된다. 그 많은 ‘장애’는 노처녀가 시집을 감으로써 사라지고 당당한 사회적 존재, 곧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사라진다. 결말 부분의 빠른 장애에 대한 해피엔딩은 노처녀의 장애가 사회적 편견으로 만들어진 결함, 즉 사회가 ‘노처녀’라는 시선에 가둔 사회적 장애물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삼설기』에 수록된 <노처녀가>²⁾에 대해서는 개별 작품론과 ‘노처녀 담론’을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이를 통해 조선 후기 가사문학의 특징적인 국면을 점검하는데 활용되었다. <노처녀가>에는 장애를 지닌 인물로 ‘노처녀’가 등장하며, 온갖 고난을 겪고 결혼에 이르러 마침내 ‘장애’가 해소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작품에 드러난 노처녀의 장애가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기에, 마침내 결혼에 성공함으로써 장애가 말끔히 해소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작품 속의 ‘신체적 장애’는 당대에 노처녀라는 인물이 지닌 ‘사회적 처지’를 비유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노처녀가>에 나타난 장애의 성격과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현재 <노처녀가>는 동일한 제목으로 단행과 장행의 형식으로 상이한 2종의 이본이 전해지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서사적 구조를 갖춘 『삼설기』 소재 <노처녀가>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단행의 이본은 『잡가』 소재의 <노처녀가>이며, 기존에는 이를 <노처녀가 1>(단행)과 <노처녀가 2>(장행)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두 작품은 제목만 같은 전혀 다른 이본이기에, 수록된 문헌을 고려하여 이를 ‘『잡가』본 <노처녀가>’와 ‘『삼설기』본 <노처녀가>’로 부르기로 한다. 아울러 본고에서 <노처녀가>로 지칭된 작품은 ‘『삼설기』본 <노처녀가>’임을 밝혀둔다.

2. 조선 후기 ‘노처녀’에 관한 사회적 인식

조선시대의 평균 결혼 연령이 남자는 15~16세, 여자는 14~15세였다. 20살 정도만 되어도 노처녀 취급을 받았으며, 25살이 넘어서도 결혼하지 못한면 국가적 차원에서 결혼을 지원해주기도 했다. 영·정조 대에 ‘노처녀’ 담론이 구체적으로 부각되었고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몰락한 집안이 증가하고 이에 비례해 혼기를 놓친 노처녀가 많아지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사대부 집안의 노총각이나 노처녀가 36~7세에 이르도록 결혼을 못 하는 것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했다. 18세기 중반 이후로 접어들면서 노처녀의 결혼 문제는 조선 후기 문학의 장(場)으로 들어오면서 더 크게 부각되었다. 노처녀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담론이 형성되었고, 그동안 많은 연구자로부터 이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이 이어졌다.

<노처녀가>가 당대의 향유층으로부터 주목받는 이유는 노처녀가 ‘장애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이룬다는 설정에 있다. 장애까지 있는 노처녀도 시집을 가면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무언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혼인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그 많은 장애의 증상을 노처녀에게 짊어지게 한 것이며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장애인과 다름 없다는 암묵적 압박이다. 현대사회에도 ‘노처녀’는 존재한다. 하지만 요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노처녀’와는 완전 그 결이 다르다. 노처녀는 사회적 약자로 온전하지 못한 존재였다. 기존에 <노처녀가>에 대한 담론과 작품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지만 장애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시대를 살았던 ‘여성’들의 욕망과 꿈을 찾는 목소리를 염두에 두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노처녀의 간절함을, 삶을 개척하고자 하였던 노처녀에게 나타난 ‘장애’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탄식과 부정적인 시선을 ‘사회적 장애’로 인식하고 그것을 거부하고자 고분

군투하는 노처녀의 변화를 기존 연구에서는 어떻게 다뤘는지를 살펴보았다. 작품론을 다룬 논문³⁾에서는 노처녀의 장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노처녀가 나이 늦도록 결혼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신체적 불구 때문이었으며, 신체적인 장애와 나이가 많다는 이중의 어려움을 지닌 노처녀에게 결혼은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 목표였다. 작중 화자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확고하며, 자신의 결함을 딛고 일어서려는 노처녀의 진지함은 읽는 이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던져주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를 보완한 작품론⁴⁾을 펼치면서 작품 전반에 비관적인 분위기가 우세하게 드러나기는 하지만, 노처녀에게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작품에는 장애로 상징되는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여 남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노력이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노처녀의 적극적 인식과 행동으로 가족들을 움직여 원하던 혼사를 이루어내는 결말을 이끌고 있다. 이것은 결국 노처녀에게 당대 사람들이 가졌던 사회적 편견이 신체적 편견으로 비유된 것이다. 이처럼 작품의 성격과 의미에 관한 탐구가 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장애에 대한 보다 진진된 인식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사대부의 몰락과 평민 의식의 성장으로 사회 상황의 변화와 함께 가사에 일어난 변이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고 여성 의식의 성장⁵⁾을 중심으로 노처녀의 사회적 상황에 초점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노처녀가>가 영웅 소설적 구조와 여성 영웅 신화에 나타나는 인물 형상⁶⁾이 가사라는 갈래에 적용된 작품이라는 연구도 있었다. <노처녀가>의 서사구조와 영웅 서사적 특징이 상업성을 가진 『삼설기』에 전제될 수 있었던 흥미 요소라는 점이다. 당시 고전 소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주인공의 영웅화는 당대 독자들에게는 호응이 높았을

3) 김용찬, 「시가와 소설의 경계, <노처녀가>」, 『오늘의 가사문학』 01, 한국가사문학관, 2014.

4) 김용찬, 「노처녀가- 자신의 결함을 의지와 열망으로 극복하다」, 『조선의 마음을 담은 노래』, 휴머니스트, 2020.

5) 서영숙, 「서사적 여성가사의 전개방식 연구」, 『한국 여성가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6.

6) 신회경, 「『삼설기』 소재 <노처녀가>의 영웅 서사적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수도 있지만, <노처녀가>에서 보여주는 노처녀의 의식 전환이 당대 사회 분위기에서는 충분히 영웅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조선 후기 가사가 새롭게 다양한 인물을 작품 속에 반영⁷⁾하면서, 특히 여성의 목소리를 구체적 형상으로 담아내면서 <노처녀가>의 주인공은 시대적 담론을 발화하는 허구화된 낭만적 화자로, 조선 후기 사회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시가 속의 여성 인물 자체에 대한 논의를 펼치면서, 작품 속에 형상화된 여성 인물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여성 인물들이 당면했던 현실을 분석하였고 당대 가사 향유층이 추구한 이상과 욕망을 짚어 내보고자 했다. 가사라는 전통문학 양식이 자기 시대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또 인물 중심 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물 형상은 본격 서사문학이라 할 소설 등의 인물 형상화와 비교해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노처녀가>를 수용 미학적 측면⁸⁾에서 혼인을 향한 노처녀의 욕망이 진솔한 감정의 표백을 통해 독자와 정서적 공감을 형성해 내었음을 사실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독자는 노처녀의 자기 서사를 보고 훈훈한 공감을 이루어감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써 문학 치유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작품에서 노처녀가 장애를 극복하고 혼인을 이루는 ‘극복 서사’라고 보았다. 이처럼 <노처녀가>는 당대를 살아가던 보편적인 여성들과는 달리 여성의식의 성장, 노처녀의 의지, 노처녀의 아이덴티티의 파악 등 의식의 성장을 다룬 연구가 주로 많이 다루져 있었으며 노처녀의 신체적 장애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있지 않았다. 노처녀 의식의 성장은 영웅서사까지 범주가 확장되어 연구되었으며 노처녀의 강한 의지를 주변을 향한 거부의 몸짓으로 읽어내는 등 비교적 작품 안에서 읽어내고 있었다. <노처녀가>의 비교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 성과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노처녀의 ‘장애’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의미 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여겨졌다.

7) 조해숙, 「조선후기 시가 속의 여성 인물 형상(1)」, 『국문학 연구』 제27호, 국문학회, 2013.

8) 손시은,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치유텍스트적 접근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감정적 유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105집, 한국언어문화회, 2018.

서철원⁹⁾은 고전시가에 나타난 온전하지 못한 몸의 사례와 연관된 시적 화자의 마주 보기를 통해 질병, 장애, 사고 등의 소재와 관련된 기원과 내면 성찰의 방식을 연구하였다. 『삼설기본』 <노처녀가>는 성과 결혼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작품 내용 가운데 병을 앓는 몸이 지닌 그로테스크한 일면과 감정적 유대를 통한 치유 등의 요소를 주목하였다. 화자는 자신의 장애를 비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노처녀의 불안정한 심리를 통해서 불편한 몸의 이미지를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궁심의 표현에 주목한다면, 노처녀는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는 모자라고 우스꽝스러운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화자가 지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볼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화자의 성(性)과 결혼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장애를 어두운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시각을 달리하여 아이러니한 장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노처녀가>의 장애인 노처녀는 자신이 처한 장애라는 상황에 비판을 하는 문제의식이 보이기도 하지만, 후반부에서 개인적 차원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의식이 약화된다고 보았다. 즉 <노처녀가>의 장애인 노처녀는 다른 장애인의 고통까지 공감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비교적 노처녀의 장애에 대한 고찰과 시선으로 노처녀가 가진 장애라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두 호란으로 장애인이 속출했으며 여러 질병이 생겨났다. 장애인은 민본적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인정(仁政)을 베풀어야 할 대상¹⁰⁾이었으며 민심의 마지막 보루였다. 본고에서는 노처녀가 가진 장애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고 작품 <노처녀가>에 나타나는 장애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고 노처녀의 장애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논해보고자 한다.

9) 서철원, 「온전하지 못한 몸과 마주보기-〈도천수관음가〉와 〈처용가〉의 질병, 〈노처녀가〉의 장애, 〈텐둥어미화전가〉의 사고」, 『국어국문학』 제43호, 국문학회, 2021.

10) 《경국대전》 권4, 병진, 면역조 및 《연산군일기》 권44, 8년 6월 을묘 참조 - 조선시대 장애의 분류는 독질, 폐질, 간질 3가지로 나누고 그 아래에 중병, 정신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언어장애 등 5가지로 구분하였음.

3. 『삼설기』 <노처녀가>에 나타난 장애의 의미

‘장애’는 신체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예전에는 장애, 불구라는 말 대신에 ‘병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병신’이라는 단어는 신체적 장애인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리석음, 무능, 순진 등을 내포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병신’이라는 단어는 조선시대에는 ‘장애¹¹⁾’라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장애인은 사회적 보살핌과 구휼의 대상이었지만 또한 사회적으로 다양한 역할¹²⁾과 기능을 담당했다. ‘장애’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차별과 억압과 배제, 열등의 의미가 함께 있다. <노처녀가>의 노처녀의 장애는 실질적인 장애라기 보다는 사회적 관념과 인습이 노처녀를 장애로 만든 것이다.

당시 사회적으로 ‘노처녀 시집보내기’라는 담론이 형성되었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노처녀’라는 상황과 ‘장애’라는 이중의 모순을 가진 인물이 <노처녀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다. 즉 사람들이 동정과 폭력적 시선을 보내기에 적합한 대상이다. 독자들은 불쌍한 장애를 가진 노처녀가 작품에서 어떤 형상으로 묘사되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작품 <노처녀가>의 화자는 본인의 처절한 의지와 욕망으로 결혼이라는 결과물에 의하여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났다. 노처녀는 주위의 도움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었지만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을 전제한다면 이런 몸짓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노처녀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해 가는 모습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욕망이 터져 나오는 작품의 시발점 또는 구심점을 했다. 이번 장에서는 작품에 묘사된 화자의 ‘장애’를 중심으로 노처녀의 상황과 작품 내용을 고찰해보겠다.

11) 장애인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때로 이름난 사람이 될 수 있는 엄연한 사회의 일원이었으나 양반이후 신분제 동요가 일어나고 과거시험의 남발로 양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직을 얻기 위한 심한 쟁투가 벌어지고 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하기 시작함.

12) 중국의 禹임금이나, 湯임금은 장애를 가졌지만 유교적 이상 정치를 이끈 군주의 상징임. 조선시대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립한 공적 기관인 明通侍가 있었음.

밥이 업셔 설위홀가 웃시 업셔 설위할ㄴ 이 셔름을 어이 풀니 / 부모님도 야속
 호고 친척들도 무정호다 / 니 비록 병신이나 남과 갖치 못할소냐 / 니 얼굴 엷다
 마쇼 엷은 궁계 슬기 들고 / 니 얼굴 검다 마쇼 분칠호면 아니 훨가 / 혼 편 눈이
 머러시나 혼 편 눈은 밝아 잇니 / 바늘귀를 능히 꿰니 보선볼을 못 바드며 / 귀 먹
 다 나무러나 크게 호면 아라듯고 텃동 소리 능히 듯니 / 오른손으로 밥 먹으니 왼
 손 호여 무엇 홀고 / 왼편 다리 병신이나 뒤간 출넘 능히 호고 / 코구멍이 뚝뚝하나
 니음시는 일슈(一數) 만네 / 님시율이 푸르기는 연지빗홀 말나 보시 / 엉덩씨가 너
 르기는 희산(解産) 잘홀 장본(張本)이오 / 가삼이 뒤앗기는 존일 줄힐 기골(氣骨)
 일시 / 턱 아러 거문 혹은 츠어보면 귀격(貴格)이오 / 목이 비록 움쳐시나 만저 보
 면 업슬손가.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묘사하는 장면으로, 화자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화자가 시집을 못 간 이유는 다른 노처녀들처럼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시집을 못 간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장애 때문이다. 눈, 귀, 팔, 다리 등이 한쪽을 못 쓰고 엉덩이, 가슴, 코등이 비정상적으로 그려진다. 귀가 먹고 얼굴은 곰보이고 귀, 팔, 다리 모두 장애가 있다. 한쪽 눈은 잘 보이지 않고 귀는 멀었지만 한쪽 눈으로 바느질 잘 하며 엷은 얼굴의 구멍에는 슬기가 들었고 크게 말하면 알아들을 정도의 귀가 있으며 천둥번개 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고, 검은 얼굴은 화장하고 연지를 갈아서 바르면 된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자신의 청각적 장애의 한계나 어려운 버선볼을 만들 수 없다는 것 즉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는 모습이 묘사된다. 화자가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지만 가능성을 언급하는 부분들은 독자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부분이다. 자신의 장애를 익살스럽게 표현하며 자신의 장애(없는 한쪽 눈)을 보지 말고 장애가 없는 부분(바늘귀를 넣을 수 있는 눈)을 봐 달라라는 화자의 기발한 발상은 애뜻한 연민을 유발한다.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부정적이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작중화자는 나이 50에 장애를 지녔지만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현실적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요소인 화자의 많은 장애 설정은 작품의 흥미를 더해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화자는 자신의 장애는 조금 불편

한 점은 있지만 남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피력한다. 화자가 장애를 가졌지만 할 수 있다고 나열되는 일상의 일들은 당시 사회적 기준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화자는 자신이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긍정적 대응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일반인들, 즉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선입관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가능성은 작품 다음에서 더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은 신체적 장애를 가졌지만 인격적,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남다른 재주와 일솜씨가 있다는 사실을 작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니 얼굴 볼작시면 곱든 비록 아니흐나 / 일등 슈모(手母) 불너다가 험거롭게
 단장허며 / 남디되 맞는 셔방 닌들 혈마 못 마즐가 / 얼굴 모양 그만두고 시속 hing
 실 웃듬이니 / 니 본시 총명키로 무슨 노릇 못할손나/ 기억 즈 나냐 즈를 십 년만
 의 찌져 니니/ 효행록(孝行錄) 열여전(烈女傳)을 무슈이 숙독(熟讀)허미/ 모를 hing
 실(行實) 바이 업고 구고(舅姑) 봉양 못할손가/ 중인(衆人)이 모힌 곳의 방귀 뛰여
 본 일 업고/ 밥주격 업허 노와 니를 죽여 본 일 업니/ 장독 소리 벗겨 니여 뒤물
 그릇 흔 일 업고/ 양치티를 집어 니여 추목허여 본 일 업니/ 이 니 hing실 이만흐면
 어더 가서 못 살손가/ hing실 즈랑 이만흐고 지조 즈랑 드러 보소.

자신의 얼굴은 예쁘지는 않지만 총명하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장애를 가진 자신에 대한 비굴함이나 비하는 나타나지 않는다. 외모의 기준이 묘사되고 있는데 화자가 생각하는 외모의 기준은 사회가 제시한 아름다운 외모의 기준과는 다르다. 자신은 성품, 행실 등에서 모자랄 것이 없음을 말한다. 한글을 10년 만에 깨치기는 했지만 효행록과 열녀전을 탐독한 자신의 총명함은 장애의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화자는 밥주격으로 이를 죽여 본 적도 없고 장독으로 뒤물 한 적도 없으며, 자신의 장점을 나열한다. 한글을 10년 만에 깨치는 것, 방귀를 뀌어 본 적도 없다는 등의 상황을 당당하게 말하는 부분들은 독자에게 애뜻함과 웃음을 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작품 속 묘사는 독자들이 작품 속 화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노처녀의 상황(장애가 있지만 생활이 가능함)을 수궁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즉 과장되지만 우스꽝스러운 상황의 나열은 화자가 소원하던 혼인을 성공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자신의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벗어난 주체로서의 의지를 내세우는 부분은 당대를 살아가는 소외된 여성 독자들의 응원과 호응을 이끌어낸다. 하지만 작품 전반에 노처녀의 긍정적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다.

니모양 불작시며 어른인지 아히런지 / 바람마즌 병인인지 광각인지 취각인지
/ 어렵기도 그지업고 붓그럽기 증양업니 / 으어와 셔룬지고 니 셔름 어이 할고

자신의 장애를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던 노처녀이지만 장애를 가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 비하하고 자조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자신의 장애는 생활함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편견과 그릇된 선입견들로 마음의 상처와 좌절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 묘사되어 있다. 비장애인의 자기중심적 시선 때문에 장애인이 겪는 고통의 심리과정을 일상의 구체적인 생활을 통해 토크하게 그려낸 부분¹³⁾으로 자신감과 좌절감을 나타내는 화자의 두 가지 마음의 모습이 독자로 하여금 더 진실하게 작품에 공감하게 한다.

니 본시 들지 쫄노 쓸 더 업다 흐려니와/ 니 나흘 헤여 보니 오십줄의 드리고나
/ 먼저는 우리 형님 십구 세의 시집가고/ 셋지의 아오년은 이십의 셔방 마즌 티핑
으로 지너는데/ 불상흔 이 니 몸은 엇지 그리 이려흔고/ 어너덜 늙어지고 츠롱군
이 되거고나/ 시집이 엇더 혼지 셔방 맛시 엇더 혼지/ 싱각흐면 싱슁상슁 쓴 지
단 지 니 몰너라.

자신은 혼인을 하지 못해서 시집의 단맛 쓴맛을 모른다고 토로하고, 자신 주

13)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 전근대 텍스트에서의-」, 『한국고전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회, 2003.

변의 상황을 서술하면서 결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이 묘사된 부분이다. 노 처녀는 집안의 둘째 딸이다. 장애가 없는 첫째는 19세에 시집을 갔고 셋째 동생도 20세에 시집을 갔다. 노 처녀의 자매들은 모두 제때 시집을 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첫째 혼사 이후에 당연히 자신의 차례가 될 줄 알았는데 혼사는 자신을 건너뛰고 셋째 동생에게로 넘어간 것이다. 화자의 ‘잡가본’ <노 처녀가>에서 화자의 나이가 40세가 넘었다고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오십 줄에 들어선 화자의 상황이 언급되면서 결혼에 대한 절실함이 부각되어 묘사되고 있다.

간수 먹고 죽조흔들 목이 쓰러 엇지 먹고/ 비상 먹고 죽조흔들 너음시를 엇지
 홀고 부모유체 난처하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빈 방중의 혼조 안저 온가지로 싱
 각하나/ 님맛만 업서지고 인물만 초취하다

나이 늦도록 결혼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신체적 장애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노 처녀는 죽음을 생각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화자의 쉽게 죽지 못하는 이유 또한 독자에게 웃음을 주는 요소로 표현되어 있다. 간수는 목이 쓰러기 때문에 먹지 못하겠고, 독극물인 비상은 냄새가 고약해서 먹지 못하겠다는 구절에서는 죽음을 생각했던 화자의 솔직한 마음이 전달된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도 실제로 화자는 죽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노 처녀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었다면 죽음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유언 형식의 <노 처녀가>를 지었을 것이다. 노 처녀는 자신의 결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 자살이라는 소재를 끌고 온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만큼 결혼을 통해 노 처녀를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가 묘사되는 부분이다. 노 처녀는 부모형제에게 기대고자 하는 마음을 정리하고 기존의 사회적 고정관념을 깨고 스스로 자신의 배우자를 맞이할 결단을 한다. 장애를 가진 노 처녀의 조건에서도 강하게 추진하는 추진력, 현실의 온갖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노 처녀의 몸짓은 당대 사회의 여성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도령이 빙췘 될가 권슈즈가 빙췘 될가/ 니일노 되게호여 싯통호를 뵘쇼셔
 / 혼들흔들 낱히 들어 쇼침호나 췘혀니니/ 슈망치던 김도령이 첫 가락의 나단 말
 가/ 싯낭을 마즐 적의 엇지 이리 거록호고/ 초리 고비 맞친 후의 동너연 합환췘로
 빅년 기약 더욱 췘타/ 감은 눈을 잠간 췘고 싯낭을 살피호니/ 슈망친 더 김도령이
 날과 과연 빙췘일다/ 니 점이 영검호여 이처로 만나는가/ 호날이 유의호여 니게
 로 보닌신가 이처로 노일다가 췘독의 바람 드러/ 이연을 못 일우고 기 쇼리의 놀
 나 췘니 침상 일뵘이라

작품의 후반부로 노처녀의 결혼 문제가 집중적으로 묘사된다. 부모 친척을 밎
 다가는 서방을 맞이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자각한 노처녀는 스스로 자신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한다. 그동안 자신의 서방을 직접 고르지 않고 남에게
 부탁하고 기다렸던 일이 미련하다고 생각한다. 노처녀는 주변의 인물들을 대상
 으로 싯랑감을 고르는 행동을 보여준다. 자신과 동갑인 김도령을 첫 번째 싯랑
 감으로, 그리고 나이가 많은 권수재는 두 번째 남편감을 염두에 두고 쇠침통을
 뵘아 점을 친다. 남편감을 자신이 맘에 든 사람으로 먼저 정해 놓고 쇠침통을 치
 는 모습은 화자의 집안에 대한 자긍심과 충분한 경제력을 바탕이 있었으므로 가
 능한 태도¹⁴⁾이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화자의 적극적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김도령을 배췘로 정하고 혼자서 온갖 즐거운 상상을 하다가 잠이 들어
 꿈속에서 가족과 친지들의 하례를 받으며 혼사를 치른다. 하지만 새벽녘에 닭
 우는 소리와 새 짚는 소리에 잠을 깨니 혼사는 꿈속의 일이었던 것이다.

홍독기의 즈를 밎여 갓 췘오고 옷 입히니 스람 모양 거의 갓다/ 췘다듬어 세워
 노코 싯 저고리 긴 치마을 호기잇게 췘쳐 입고/ 머리 우희 팔을 드러 제뵘으로 절
 을 하니 눈물리 췘횡호여 입은 치마 다 적시고/ 혼숨이 북발호여 곡성이 날듯호다
 / 마음을 강닝호여 가마니 혀여보니 가련호고 불상호다/ 이런 모양 이 거뵘을 싯
 영은 알 췘시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부모들도 의논호고 동생들도 의논호여/ 김도
 령과 의혼호니 첫 마디의 되논고나

14) 서철원, 같은 논문.

노처녀는 꿈속의 일을 꿈으로만 남기지 않고 스스로 실행에 옮긴다. 혼자서 신부 단장을 하고 흥두깨를 신랑으로 꾸며 놓고 가상 결혼을 혼자서 진행한다. 흥두깨로 모의 결혼식을 진행하는 모습은 주변사람들에게 화자의 간절함이 전달되는 계기가 된다. 효행록을 기준으로 유교적인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했던 화자의 이런 파격적인 행동에서 사회적인 규범에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다부진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감한 행동의 변화는 또한 화자가 살고 있는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화자의 바람은 결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바로 결혼을 하여 사회적 질서에 편입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처녀의 절실함이 가족들에게 전달되어 부모와 동생들이 드디어 작중 화자의 혼사를 의논하게 된다.

노처녀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불쌍하고 연민어린 눈으로 동정해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처녀는 자기 주체적인 강인하고 긍정적인 자기애로 자신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스스로 벗어났다. 그리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거듭난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만한 김도령이라는 인물이다. ‘김도령과 의혼하니 첫 마더의 되는고나’ 김도령은 흔쾌히 노처녀의 청혼에 수락을 한다. 김도령은 노처녀가 가진 장애는 큰 걸림돌이 아니라고 생각한 인물이며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장애에 부정적인 편견이 가득한 보통의 김도령이었다면 혼사에 그렇게 흔쾌하게 승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도령의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이 없었다면 노처녀의 결혼은 어떻게 진행되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볼일이다. 김도령과 노처녀의 장애를 바라보는 생각의 합일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김도령의 혼사 승낙 첫마디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혼인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노처녀가 자신의 장애에 스스로 굴복하고 결혼을 꿈꾸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의지와 마음이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마침내는 자신이 신랑감으로 점찍었던 김도령과의 혼사가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이다.

평성 소원 다 풀니고 온갖 시름 바히 업니/ 이전의 잇던 스암 이제록 생각흐니
 도로혀 출몽 갖고/ 니가 혈마 그러하랴 이제는 기탄업다/ 먹은 귀 발아지고 병신
 팔을 능히 쓰니 이 안니 회흔헝가/ 혼닌흔 지 십삭만의 옥동즈를 순순흐니/ 쌍티
 를 어니 알니 즐겁기 층양업니/ 기기이 영준이오 문지가 비상흐다/ 부부의 금슬
 좃코 즈손이 만당흐며/ 가산니 부요흐고 공명이 이름 츠니 이 안니 무턴헝가¹⁵⁾

신체적인 장애가 결혼과 동시에 사라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김도령과 노처녀는 이를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행복한 결말이다. 우여곡절 끝에 노처녀는 드디어 원하던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과 동시에 노처녀가 가지고 있던 신체적 장애는 모두 사라진다. 서술자는 ‘먹은 귀는 밝아지고 병신 팔을 능히 쓰게 되니 이것 참 희한한 일 아닌가’라고 덧붙이고 있다. 물론 작품 결말 부분 장애가 풀어지는 과정이 두리몽실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으며 노처녀 결혼과 결혼 이후가 어떤 인과적 설명도 없이 모든 일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더 이상의 변화는 추구할 수 없는 봉건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이런 결말을 이끈 화자의 행동에 독자들은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결혼과 동시에 해피엔딩으로 빠르게 전개되는 작품의 결말은 다음에 등장하는 소설 작품에서 다른 형태¹⁶⁾로 독자에게 전달된다.

장애가 극복되는 모습이 사회제도 안에 흡수되는 모습으로 처리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노처녀의 장애는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지배층의 논리에 부합되는 형상으로 나열될 수밖에 없는 당대사회의 구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노처녀가>의 노처녀는 신체적인 장애와 나이가 많다는 이중의 어려움을 지닌 인물로 당시 사회에서 요구되는 결혼은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의지가 강한 노처녀는 장애가 있음에도

15) 신회경, 같은 논문.

16) 강경호, 「19세기 가사의 향유 습관과 이본 생성 -<노처녀가2>와 그 관련 작품을 통해 본 가사 향유의 한 양상」, 『반교어문연구』, 반교어문학회, 2005. - 노처녀가의 이본 연구를 통해 가사의 서사화 문제를 통해 <꼭독각시전>과의 관련 양상을 연구함.

불구하고 결혼으로 자신의 장애에서 벗어났으며, 불구로 상징되는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여 남들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당시 여성들에게 강요되었던 유교적 덕목은 충(忠)과 효(孝)이었고 효의 구현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이었다. 가정의 질서 확립이 사회적 국가적 가치로 확산될 수 있었고, 여성들은 태어나면서 이러한 사회적 태도와 신념을 교육받으면서 사회질서를 유지 시켜 나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만 했다. 여성들에게 유교적 덕목은 너무나 엄격한 틀이었지만 여성들은 유교문화를 받아드리면서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조선시대에 노처녀란 존재는 이미 사회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 따라서 작품 속에 제시된 노처녀의 신체적 결함은 당대 사람들이 노처녀에게 가졌던 사회적 편견을 장애로 인식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노처녀와 뜻을 함께한 김도령과 같은 인물이 있었기에 사회는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노처녀가>는 독자들에게 화자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여성들의 보편적인 삶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결혼을 하면 사회적 편견이 해소되고 그 결과 신체적 결함도 말끔하게 해소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노처녀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노처녀를 장애자로 바라보게 한 것이다.

4. 맺음말

이 글은 삼설기본<노처녀가>를 대상으로 노처녀의 모습과 처지를 작품 속에서 읽고 유교적 제약이 많았던 시대의 노처녀에게 장애란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결혼을 못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완전한 성인으로 대접받을 수 없었으며, 결혼을 한 사람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분위기였다. 자유로운 만남을 통한 결혼이 불가능했던 시대에 신체적 장애

나 가난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늦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결혼에 대해 진전공공할 수밖에 없었다. <노처녀가>의 노처녀는 장애라는 인간적인 결함에 의해 문헌 인간의 욕구를 자각하고 그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준다. 오랜 시간 결혼에 대한 기다림과 주변 사회적 시선은 노처녀의 삶을 더욱 힘들게 했지만 비정상적이라는 이유로 일상생활의 제약과 사회적 편견을 감내하지 않았다. <노처녀가>에 등장하는 노처녀 목표는 좋은 집안의 남자에게 시집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 여기서 읽어내고자 했던 것은 주위의 무관심과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집안에 묶인 화자의 삶이 장애로 나타나고 그 장애는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그저 원망, 한탄, 울분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작품의 화자는 자신의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체념하지 않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체적 장애와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실에 대해서 회화화하여 표현하기도 하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죽음을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뛰어난 재주와 음식솜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진지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본인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던 시대의 노처녀는 장애를 짊어진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결혼이라는 목표에 절대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노처녀’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통하여 당시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의 모순점을 읽을 수 있었으며 결혼하지 못한 ‘노처녀’는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시집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봉건적인 사고방식이 당시 여성들에게 결혼을 얼마나 강요했는지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불완전한 약자인 노처녀의 상황은 ‘장애’로 묘사되었으며 노처녀의 신체적 장애를 딛고 일어서려는 진지함이 읽는 이들이 노처녀를 응원하게 만들었으며 화자의 간절함과 용감함이 독자들의 응원과 건강한 웃음을 주었다. 노처녀는 자신이 비록 불구이지만 시집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남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겸비한 장점들을 제시하면서 화자가 시집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강조한다. 장애를 가진 <노처녀가> 화자는 장애에서 벗어나고 현실적 욕망을 공동체 내에서의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면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봉건사회에서는 여성들에게는 결혼은 성숙한 성인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사실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노처녀가>의 화자는 장애를 가졌지만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능동적인 행동과 의지를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품에서 장애에 대한 언급 부분이 빠르게 해결되는 아쉬움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도 있지만 당시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 특히 여성 속에서도 더 소외된 ‘장애를 가진 노처녀 여성’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당당한 가치의 전복을 읽을 수 있었다.

<노처녀가>에 나타난 화자의 장애는 사회적 관념과 인습이 만들어낸 ‘사회적 장애’이며 노처녀는 자신이 가진 힘든 장애를 포기하지 않고 불리한 현실에 안착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억압과 편견에 맞서는 형상으로 다음 시대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정신을 불러 넣어준 것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김도령이라는 인물 역시 노처녀와 같은 열린 사고를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노처녀가 조건에 맞는 인물을 찾아서 청혼을 할 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쉽사리 혼인에 승낙하는 일은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노처녀의 적극적인 의지와 사회적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김도령의 태도가 작지만 사회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몸짓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처녀가>의 주인공이 장애가 극복되지 않더라도 있는 장애 있는 그대로 인성 좋은 김도령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내용의 결말 설정도 내심 아쉬운 부분이다. 김도령의 시각으로 바라본 <노처녀가>의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이런 의구심들은 다음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 강경호, 「19세기 가사의 향유 습관과 이본 생성 -<노처녀가2>와 그 관련 작품을 통해 본 가사 향유의 한 양상」, 『반교어문연구』, 반교어문학회, 2005.
- 김용찬, 「『삼설기』 소재<노처녀가>의 구조와 특징」,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 _____, 「시가와 소설의 경계, <노처녀가>」, 『오늘의 가사문학』 01, 한국가사문학관, 2014.
- _____, 「노처녀가, 자신의 결함을 의지와 열망으로 극복하다」, 『조선의 마음을 담은 노래』, 휴머니스트, 2020.
- _____, 「<노처녀가>에 나타난 여성의 목소리와 그 의미」, 『한국시가문화연구』 제49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22.
- 박상영, 「<노처녀가> 이본의 담론 특성과 그 원인으로서의 ‘시선’」, 『한민족어문학』 제73집, 한민족어문학회, 2016.
-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 전근대 텍스트에서의-」, 『한국고전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회, 2003.
- 성무경, 「‘노처녀’ 담론의 형성과 문학양식들의 반향」, 『조선 후기시가문학의 문학 담론 탐색』, 보고서, 2004.
- 손시은,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치유텍스트적 접근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감정적 유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105집, 한국언어문학회, 2018.
- 서영숙, 「서사적 여성가사의 전개방식 연구」, 『한국여성가사연구』, 국학자료원, 1996.
- 서철원, 「온전하지 못한 몸과 마주보기 -<도친수관음가>와 <처용가>의 질병, <노처녀가>의 장애, <텐동어미화전가>의 사고」, 『국어국문학』 제43호, 국문학회, 2021.
- 신희경, 「『삼설기』 소재 <노처녀가>의 영웅 서사적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 심승구, 「조선시대 장애의 분류와 사회적 처우」, 『한국인, 몸의 사회사』, 2004.
- 양정화, 「조선후기 가사에 나타난 ‘애정담론’의 실현 양상 -<삼설기본 노처녀가>와 <잡가본 노처녀가>의 향유 문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54

집, 국제어문학회, 2012.

양태순, 규방가사 여성성으로서의 '한탄'에 대하여,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쪽.

조혜숙, 「조선 후기 시가 속의 여성 인물 형상(1)」, 『국문학 연구』 제27호, 국문학회, 2013.

정창권, 「조선시대 장애인 예술가의 존재양상」, 『한국학연구』 제38호, 2011.

최규수,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갈등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 잡가본<노처녀가>와의 대비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5집, 한국시가학회, 1999.

최상은, 「조선 후기 여성의 두 가지 욕망과 탄식- <노처녀가>와 <여자자탄가>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82집, 한민족어문학회, 2018.

| Abstract |

Disability Awareness and Its Meaning in Samseolgi's <Nocheonyeoga>

Jeong, Mi-sook

Suncheon National Univ. Ph.D.

GASA(歌辭) is a genre in which various artists participated because they can contain many narratives in terms of formality. As various writers participated, the Gasas contain stories of various themes. As many female readers were creat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many works dealing with women's stories appeared.

As the title suggests, the main character in the old maid's song has a serious disability for an elderly maid who is quite old. In feudal society, where Confucian ideas were firm, there were times when it was unimaginable for women to do something on their own. You can see what a great cry the old maid's voice began here. This is because the past is an important stepping stone to draw the developed image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is article read the appearance and situation of the old maid in the work for the Samseol Basic <Nocheonyeoga> and examined what disability meant for the old maid in a time when there were many Confucian restrictions. At that time, the social atmosphere was that those who did not get married could not be treated as full adults in the community, and only those who got married were recognized as members of society. In an era when marriage through free meeting was impossible, women who could not get married late due to

physical disabilities or poor economic conditions were helplessly worried about their marriage. In <Nocheonyeoga>, we will be aware of the human desire buried by the human defect of disability and visit the struggling image of old maid to achieve that desire.

Key words : Gasa, Nocheonyeo, marriage, disability